



## ‘이 달의 과학기술자’

김영주 박사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IMT-2000 단말기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토털 SW 플랫폼(Total SW Platform)을 개발한 삼성전자(주) CTO전략실 소프트웨어 센터 센터장(상무) 김영주 박사를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10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박사는 선진 경쟁사인 노키아의 동종 SW 플랫폼보다 2년 이상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근 핸드셋 제품 기능의 다양화 및 복잡화로, 여러 기종에서 동일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나, 상이한 HW 및 OS에 따라 별도의 SW를 개발, 개발 효율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IMT-2000 핸드셋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토털 SW 솔루션 개발, 여러 하드웨어나 독립적인 레이어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핸드셋 개발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연구로 김 박사는 관련 해외·국내 특허 37건을 확보하고, 개발 투자비용(인력/기간)을 기존 대비 약 30% 절감시켜 2~3년 후 IMT-2000 휴대폰이 대중화되면 김 박사가 개발한 SW가 내장된 휴대폰 매출이 8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대폰 및 PDA용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국

내 주력 제품인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제품용도 특성상 선진 경쟁사인 인텔의 NOR 플래시 메모리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었으나, SW적으로 NAND와 NOR 장점을 수용하는 SW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NAND 플래시 메모리의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심비안,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 세계 선진 업체가 삼성의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이미 표준화 또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의 NAND 플래시 메모리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 2004년에는 1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0월 수상자로 선정된 김 박사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엠비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계 주요 표준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SW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공헌하고 있다. 김 박사는 주요 세계 표준화단체인 엠비디드 리눅스 컨소시엄, UPnP, OSGi 등에서 BOD 멤버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표준화 관련 의사 결정시 국내 업체를 대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가전 업체간의 엠비디드 리눅스 기구인 CE Linux Forum 결성을 주도하여 삼성전자는 물론 세계 SW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㉞